

# 장학전형 운영 보완방안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연구

-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운영 현황 분석 및 실태 조사 -

연구책임자 장진명 인하대학교 물류학과 박사과정  
공동연구자 배은정 시흥시인재양성재단  
김은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
김남종 (주)세오 로봇연구소  
이용우 중소벤처기업연구원

## 1 연구배경 및 목적

- 시흥시의 전체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, 만 9세~만 19세인 청소년이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0.91%, 만 19세~만 34세인 청년 비율은 약 20.61%, 중년 및 장년층은 약 38.97%으로 나타남.
- 시흥시의 인구 분포의 특성은 과거에 청년층이 부족했던 모래시계형 인구 구조와 달리 오늘날에는 청소년기를 탈피한 청년의 수와 중장년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소년층의 비중이 낮은 상황.
- 이에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지역 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지역 아동·청소년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.
-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지역 시민의 유입과 기존 시민의 거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. 더불어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에 따른 청년 및 중·장년층 대상으로 장학전형의 다양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인구 구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.
- 따라서 본 연구는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전형 운영에 따른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, 시흥형 장학전형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.
- 이를 위해 기존의 장학전형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자 장학전형 운영 분석, 타 재단과 장학전형 운영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음. 또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실무자, 기탁자,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시흥형 장학전형에 대한 방향성 및 운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## 2 장학금 운영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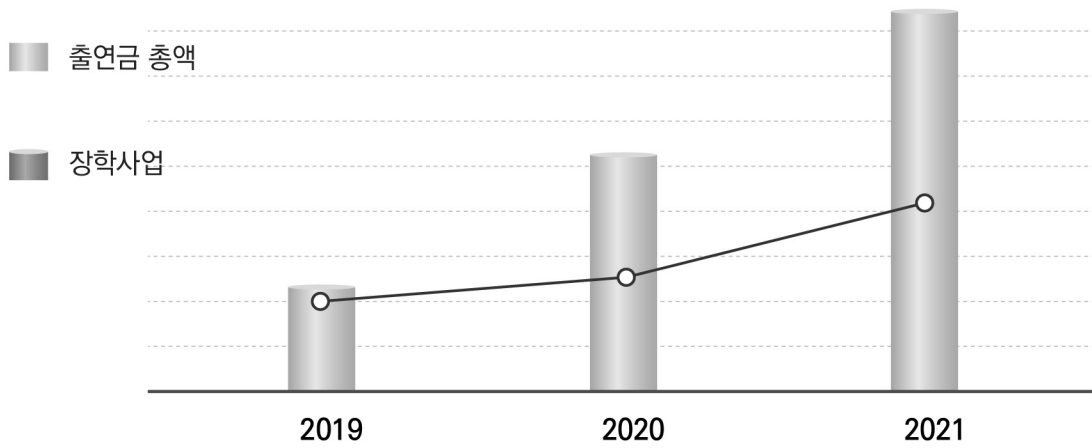
### 1)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운영 현황

- 출자금 출연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.
- 최근 3개년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단의 장학사업 관련 집행금액 및 수혜 인원을 살펴보면 장학금 사업의 총 집행금액과 수혜 인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.
- 또한 장학금은 등록금성에서 생활비성으로 장학금 사용처를 확장시키고 있음. 이는 보편적인 장학제도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.

〈표 1〉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운영 현황

지급 연도	사업 명	사업내역	집행 금액	수혜 인원	비고
2019년도	장학금 사업	고등학교 수업료	78,450,240	63	
		대학교 수업료	231,819,780	96	
		정책연구장학금	5,500,000	48	
		멘토링 장학금	1,500,000	5	
		지정기탁 장학생	59,000,000	49	
소 계			<b>376,270,020</b>	<b>261</b>	
2020년도	장학금 사업	소상공인 응원장학금	7,000,000	5	
		정규장학금	303,737,830	155	등록금성
		지정장학금	28,000,000	24	
		코로나19 장학금	178,500,000	206	
		정책연구개발	5,000,000	단체	
소 계			<b>522,237,830</b>		
2021년도	장학금 사업	다함장학금	541,000,000	833	
		정규장학금	214,698,500	153	등록금성
		꿈트리장학금	57,500,000	33	
		채움장학금	300,000	1	
		지정장학금	19,500,000	15	
소 계			<b>832,998,500</b>	<b>1,035</b>	

[그림 1] 사무국 출연금 중 장학사업 비중



## 2) 타 기관 장학금 운영 비교 분석

- 타 기관의 장학금 운영 현황을 검토 및 장학금 비교표를 활용하여 현 재단의 장학전형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흥시와 인접한 도시인 부천시, 수원시, 안산시, 인천시, 오산시 5곳의 육성재단 및 장학재단을 조사 분석하였음.
- 시흥시는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 전형별로 장학금의 액수가 다르며, 일부 전형들의 인원수가 타 장학 전형 대비 매우 낮음은 상태임.
- 장학 전형의 이름이 타 재단 대비 직관적이지 않아 전형의 지원조건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.
- 안산시 오산시 및 수원시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장학 전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<표 2> 2021년도 타 기관 장학금 비교

구 분 연 도	성적우수 장학금	저소득층 지원 장학금	예체능 지원 장학금	관내 근로자녀 장학금	다자녀 장학금	다문화 장학금	관내 대학 진학 장학금	효·선행 장학금	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	지역 특성 (특화) 장학금
시흥시	●	●	●	●	●	●		●	●	
안산시	●						●		●	●
인천시	●	●	●							
부천시	●	●	●		●					
수원시	●	●	●		●	●		●		●
오산시	●	●	●	●	●	●	●			●

### 3 장학금 운영 실태조사 분석 방법 및 절차

#### 1) 조사 대상

- 재단 내 장학 운영 관계자와 기탁자,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함.
- 재단 내 장학 운영 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였음.
- 기탁자는 총 3인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기탁을 한 대상으로 선정하였음.
- 수혜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개년도에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, 이들을 중 희망자에 한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함.

#### 2) 조사 방법 및 기간

- 양적 연구 방법
  -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.
  - 설문 기간은 2022년 8월 10일-9월 13일까지 약 5주간이고, 진행 방식은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온라인 방식이었음.
- 질적 연구 방법
  - 재단 내 장학 운영 관계자와 기탁자를 대상으로 일 대 일 심층 인터뷰가 대면으로 진행됨.
  - 2020-2022년도 수혜자를 대상으로 수혜 연도에 따라 5인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비대면으로 진행됨.
  - 인터뷰 시간은 60분 내외로 진행하였고,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.

###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

#### 1) 현 장학재단 내 운영 현황

- 현 장학 전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타 재단 대비 장학 전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, 장학 전형 별로 장학금의 액수가 다양한 것을 확인함.
-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.
- 그러나 재단의 1가정 1자녀 선발이라는 기준을 고려했을 때, 전형별로 상이한 조건과

금액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. 또한 전형 별 경쟁률의 차이는 지원자의 지원 의욕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- 또한 접수 인원과 모집인원 대비 실제 선발 예정인원에서의 큰 차이는 제출 서류 미비 및 지원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.
- 위의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전형 별 지원 초과 및 미달에 따른 편차는 단순히 홍보 문제만이 아닌 적은 선발 인원,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전형, 제출 서류 미비 및 지원 자격 미달 등 다양한 원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본 장학재단은 홍보 개선뿐만 아니라 장학 전형에 근본적인 개편과 전형 별 제출 서류 체크 및 기관 협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. 또한 고도화된 서류 접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서류 제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〈표 3〉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심사 결과

장 학 분 야		모집인원 (A)	접수인원 (B)	선발인원	경쟁률 (B/A)	
계		362	456	164	1.26:1	
우수인재 장 학 생	고등학생 (개별신청)	38	24	22	0.63:1	
	고등학생 (고교추천)	34	25	22	0.74:1	
	대학생 (수능성적)	10	5	5	0.50:1	
	대학생 (내신성적)	신입생(고3성적)	11	9	5	0.82:1
		전문대 재학생	4	38	6	9.50:1
		4년대 재학생	33	267	53	8.09:1
소 계		130	368	113	2.83:1	
공익인재 장 학 생	중 학 생	10	6	1	0.60:1	
	고등학생	10	6	2	0.60:1	
	대 학 생	12	26	15	2.17:1	
소 계		32	38	18	1.19:1	
채움 장학생	고등학생(3학년)	50	1	대상없음	0.02:1	
	청 년 (20세이상-24세미만)	50	15	7	0.30:1	
	청 년 (24세이상-34세미만)	80	32	25	0.40:1	
	만학도 (36세이상-60세미만)	20	2	1	0.10:1	
소 계		200	50	33	0.25:1	

〈표 4〉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심사 결과

장학 분야		모집인원 (A)	접수인원 (B)	선발인원	경쟁률 (B/A)	
<b>계</b>		<b>916</b>	<b>1,093</b>	<b>428</b>	<b>1.19:1</b>	
다함 장학생 -9개 (766명)	미래 (490명)	초	60	80	36	1.33:1
		중	80	79	36	0.99:1
		고	100	67	30	0.67:1
		대	250	231	115	0.92:1
	<b>소계</b>		<b>490</b>	<b>457</b>	<b>217</b>	<b>0.93:1</b>
	다자녀 (50명)	중	15	87	15	5.80:1
		고	15	68	15	4.53:1
		대	20	188	20	9.40:1
	<b>소계</b>		<b>50</b>	<b>343</b>	<b>50</b>	<b>6.86:1</b>
	북한이탈 주민가정 (20명)	초	5	5	5	1.00:1
		중	5	4	4	0.80:1
		고	5	4	4	0.80:1
		대	5	6	6	1.20:1
	<b>소계</b>		<b>20</b>	<b>19</b>	<b>19</b>	<b>0.95:1</b>
	다문화 가정 (40명)	초	10	9	3	0.90:1
		중	10	7	3	0.70:1
		고	10	2	-	0.20:1
		대	10	3	1	0.30:1
	<b>소계</b>		<b>40</b>	<b>21</b>	<b>7</b>	<b>0.53:1</b>
	학교밖 (11명)	검정	6	5	2	0.83:1
신입생		5	5	3	1.00:1	
<b>소계</b>		<b>11</b>	<b>10</b>	<b>5</b>	<b>0.91:1</b>	
장애 (20명)	초	5	3	2	0.60:1	
	중	5	3	1	0.60:1	
	고	5	4	4	0.80:1	
	대	5	1	1	0.20:1	
<b>소계</b>		<b>20</b>	<b>11</b>	<b>8</b>	<b>0.55:1</b>	
산업단지 (30명)	고	10	7	4	0.70:1	
	대	20	54	20	2.70:1	
<b>소계</b>		<b>30</b>	<b>61</b>	<b>24</b>	<b>2.03:1</b>	
지역인재	대	25	16	5	0.64:1	
소상공인 (80명)	고	35	11	8	0.31:1	
	대	45	62	37	1.38:1	
<b>소 계</b>		<b>105</b>	<b>89</b>	<b>50</b>	<b>0.85:1</b>	
채움장학생 (국가자격/ 어학성적)	만23세 이하	45	20	9	0.44:1	
	만24세 이상	35	21	10	0.60:1	
<b>소 계</b>		<b>80</b>	<b>41</b>	<b>19</b>	<b>0.51:1</b>	
꿈트리장학생 (예·체·기능)	중	10	19	10	1.90:1	
	고	30	14	14	0.47:1	
	대	30	8	5	0.27:1	
<b>소 계</b>		<b>70</b>	<b>41</b>	<b>29</b>	<b>0.59:1</b>	

- 그리고 장학 전형 운영진의 경우, 다양한 장학 전형과 이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선별과정은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. 특히, 타 재단의 장학 전형 운영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, 인재양성재단 내 장학전형 담당 직원이 한 명인 점은 장학 전형 서류 접수, 확인, 선발 과정에서의 부담은 클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장학 전형 운영진과 지원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소외계층 별로 구분된 전형들을 통합한 후 선발 인원수를 늘리고, 이들이 장학 전형을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음.
- 전형 별로 구분된 장학금 액수를 통일시켜, 지원자들이 장학금 액수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원 자격만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게 단순화해야 함.
- 장학전형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수정함으로써 지원자들의 혼란과 심리적 장벽을 줄일 필요가 있음.
- 마지막으로 2021년 재단 내 도입된 전산화를 고도화하여 데이터 분석 및 장학생 관리 등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장학전형 신청자의 편의성 증대 및 담당자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.

〈표 5〉 타 재단 별 장학 팀 인원 및 장학사업 예산 비교

지역	재단명	전체 재직인원	장학 팀 인원	2021년 기준 장학사업 예산	비고
안산시	인재육성재단	10	4	625,000,000	
인천시	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	26	3	253,101,400	
부천시	부천장학재단	3	1	136,406,920	공무원 근무
수원시	수원시장학재단	4	1	812,047,000	
오산시	오산교육재단	19	1	292,000,000	
시흥시	시흥시인재양성재단	9	1	1,283,500,000	사무국인원 4명

## 2) 기탁자 심층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

- 장학기금 유지와 관련하여 기탁자들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음.
- 따라서 본 재단은 정기적인 간행물을 비롯한 간담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기탁을 결심한 계기 중 시에서 출자·출연한 기관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주었음. 따라서 시흥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측면을 활용하고자 기탁자 간 네트워크를 비롯하여, 기탁자-수혜자, 기탁자-인재양성재단 간의 교류 활동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. 기탁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기탁자의 소외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### 3) 수혜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시사점

- 상당수의 수혜자들은 지인 및 가족을 통해 재단을 인식하고 있고, 재단에 대한 정보를 SNS와 카카오톡 플로스 채널을 통해 습득하고 있음.
- 기존에 활용해오던 바이럴 마케팅 기법뿐만 아니라 최근 홍보 효과가 높게 나타난 지자체 홈페이지 및 학교를 통한 홍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 따라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.
- 다음으로 장학 전형 지원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 준비 및 확인, 자기소개서 작성 등 접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고함. 이는 필요 서류 미제출 및 지원 조건의 부적합자를 상당수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, 장학금 지원자 대비 실제 선발인원이 낮았던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음. 따라서 증빙서류의 구체성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문의 전화 감소, 필요 서류 미제출 확인, 조건 부적합자 확인 등을 통해 지원자 및 운영자의 편의성을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.
- 장학 전형 선정 단계에서는 각 전형 별 커트라인 및 경쟁률 등 선정 결과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. 실제로 상당 수의 수혜자들이 커트라인 공개를 희망하고 있으며, 이는 상기한 전형 별 낮은 선발 인원, 자기소개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등 시간과 노력의 투자 대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.
- 장학금 선발 및 지급 시기에 있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수혜자들에게 가장 크게 자금이 필요한 시기는 등록금 및 기숙사비 납부, 도서 구매 등이 필요한 학기 초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. 따라서 재단 운영 상황과 실질적인 수혜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모집, 선발, 지급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.
- 마지막으로 수혜자들을 위한 사후관리(커뮤니티, 지급자 대상 강연, 서포터즈 활동 등)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사후관리 진행 시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활동, 관련 전공 진학자와의 커뮤니티 형성 등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이들의 욕구가 진로 및 취업 연계와 커뮤니티 형성인 것을 감안하여, 해당 프로그램이 단순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장기적인 활동과 동시에 추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해야 함.



#### 4) 시흥형 장학전형 방향성 제언

- 본 연구는 선제적으로 기존의 장학 전형에 시흥의 특성을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 이후 사후관리 특성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면서 활동 가능한 시흥형 장학전형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.
- 시흥시에 위치한 공단 내 기업, 관내 대학(원)생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대외활동 수상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활동형 장학 전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마지막으로 올바른 시흥형 장학전형을 위해서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인식을 확립 시킴으로써, 보다 많은 시흥 시민에게 장학전형을 지급하고 나아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음.